



토론하기 쟁점에 따른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절차에 따라 토론한다.

### ① 논제 소개

#### 사회자의 역할

- 토론이 열린 배경과 논제를 소개한다.
-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한다.
-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을 적절히 통제한다.
-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찬성 연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반대 연설**

#### 입론

**찬성 1**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찬성 측 제1 토론자가 제시한 쟁점에 따른 주장을 정리해 보자.

##### 문제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해결 방안

-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얻을 수 있다.
- \*투표 연령을 낮추면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이익/효과

-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저는 <sup>입론</sup>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sup>정리</sup>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신문

반대 2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아,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2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만 17세나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요?

찬성 1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회자 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1 토론자께서 <sup>정리</sup>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

-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논제가 등장한 배경을 명시한다.
-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음을 입증한다.

- \*찬성 측의 내용의 오류 지적
- \*찬성 측의 세부 주장 재확인

## 입론

###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입론

- 찬성 측 제1 토론자가 정의한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한다.
-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한다.

**반대 1** 찬성 측이 입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배워 나가는 시기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도 만 17세나 16세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투표 연령에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고려할 때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교육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 측 제1 토론자가 제시한 쟁점에 따른 주장을 정리해 보자.

#### 문제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제한한 것이다.

\*투표 연령 제한은 보호의 의도일 뿐 인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해결 방안

-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 인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는다.
- 정치나 정책에 관한 관심은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 이익/효과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투표 연령 제한을 유지해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신문

찬성 1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만일 법적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반대 1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찬성 1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0 반대 1 청소년보다는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론

찬성 2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매체의 발달로 과

\*반대 측의 근거의 허점 지적

\*반대 측이 새롭게 제시한 해결 방안 지적

제2 토론자의 역할

제1 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거나, 제1 토론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제시한 세부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정리해 보자.

①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근거

-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②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근거

-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반대 신문

거와는 달리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 측에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 또한 만 18세부터입니다.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만 18세부터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세탁 정중 & 상대 측 권 반박'

투표 연령을 낮추면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권자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사상이나 이념에서 자유롭습니다. 성인보다 정책과 업무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유 정중 반박'

사회자 네, 그럼 이제 반대 측 제1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외국의 투표 연령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세계적 추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찬성 2 많은 나라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1 바로 그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령 ↓  
세계적 추세  
6

찬성 2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해서 외국 청소년보다 판단력이 낮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 세부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

사회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만 20세 이상이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부터 투표 연령을 낮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춘 지 불과 10년 남짓 되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10년 전에 이를 감지하고 법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판단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

10 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만 20세 이상, 싱가포르는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여 이처럼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투표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이나 교육 제도 등을 종합

15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투표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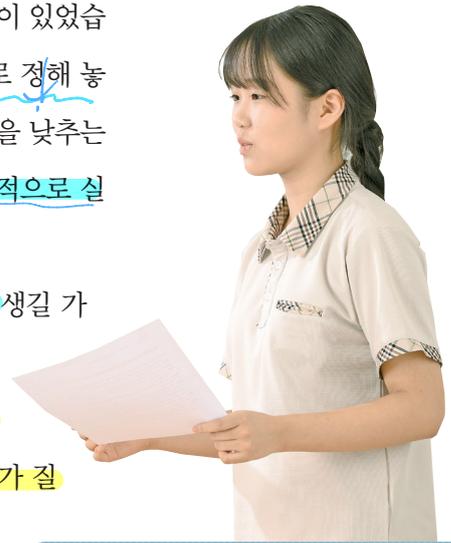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신문

20 **찬성 2**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반대 2** 하버드 의대 맥린 병원은 자기 공명 영상 장치[MRI]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뇌 활동과 성인의 뇌 활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인의 뇌에서는 이성적 판

25 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청소년의 뇌에서는 측두엽 안쪽에 위치하여 감정과 행동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대 측 제2 토론자가 제시한 세부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정리해 보자.

①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변화이다.

근거  
투표 연령은 지난 2005년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바뀌었다.

② 투표 연령은 각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타이완은 만 20세, 싱가포르는 만 21세가 되어야 투표할 수 있다.

반대 측 제2 토론자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타당한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주장: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이 부족하여 제대로 투표할 수 없다.

근거: 하버드 의대 맥린 병원의 연구 결과

반대 측	찬성 측
타당하다.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청소년의 투표 참여가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다.

**찬성 2** 그것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요?

**반대 2**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결국 투표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투표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각 토론자의 입론과 반대 신문까지 잘 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반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측 제1 토론자, 찬성 측 제1 토론자, 반대 측 제2 토론자, 찬성 측 제2 토론자 순으로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론한다.)

**반론**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

**사회자**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움이 있는 질문**

토론 참여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 토론 절차와 규칙을 지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거나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지 않는다.
- 상대측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